

드라마에 무단으로 사용된
신청인의 증명사진,
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

01

A 방송은 B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, 신청인의 항의로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. 그러나 피신청인 A 방송은 B 드라마의 후속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세트장에 비치하여 반복적으로 재노출했고, 이에 신청인은 초상의 반복적인 노출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

A 방송은 해당 사진이 드라마에 최초 사용된 경위는 파악할 수 없으나, 외주 제작사의 소품 담당 협력 업체와의 소통 부족으로 해당 사진이 재사용되었다며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. 조정심리 결과, 중재부는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,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진 사용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삭제되지 않고 반복 사용된 데 따른 피해가 크다고 인정,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및 VOD 삭제와 더불어, 합의사항을 어기고 신청인의 사진을 다시 사용할 때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다.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.

CCTV에 찍힌 범죄현장 근처의
음식점 노출, 손해배상 및
영상삭제로 조정성립

02

C 방송은 서울 도봉구 소재 모 술집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,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웃 음식점 CCTV 영상을 사용한 바 있다.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식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음식점 입구 등이 그대로 방송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

피신청인 C 방송은 신청인의 음식점이 특정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, 동네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보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, 매출 하락과 보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. 조정심리 결과, 중재부는 신청인이 선의로 CCTV 영상을 제공했는데, 신청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홈페이지에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등 자료제공자인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,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및 영상 삭제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.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.

보도내용과 무관한
자료화면 사용,
정정보도로 조정성립

03

D 방송은 갱년기 증상의 개선을 위해 섭취하는 여성호르몬제가 오히려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, 한 여성이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 삼키는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방송하였다.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장면의 제품은 신청인이 판매하는 칼슘, 철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여성호르몬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방송으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오해와 항의를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.

중재부는 신청인 제품을 모자이크 처리해 해당 장면만으로는 신청인 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한 다수의 여성호르몬 제품을 구분하기 불가하다는 D 방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,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에 합의를 권유, 조정이 성립됐다.

공감블로그 속 『△신문△사람』 2월호 100자평

박생범 님

한비야 님과의 인터뷰 <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힘>을 읽고, 사자가 오즈의 마법사에게 용기라는 것을 얻으러 가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. 용기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한 움큼의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

유재범 님

<기사삭제가 이루어지기까지> 글 흥미롭게 보았습니다. 현장 취재에서 편집 데스크까지 고심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을 역지사지로 떠올리게 되었으며, 반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도 중요하기에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.

정경석 님

<플랫폼의 진화와 새로운 뉴스 읽기> 글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. 다양한 형태의 뉴스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 지형변화에 맞추어 언론중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

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(<http://pacblog.kr>) 『△신문△사람』 3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3월 18일(금)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(2만원 상당)을 드립니다.